

지 상 범 석

노젓는 사공은 자기 자신

‘부처님이 소원 들어주신다’ 잘못된 믿음
부처님은 ‘성불의 길’을 일러주셨죠

구나에 달려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각을 얻어 일체중생이 불성을 잘 갖추고
있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갖
추고 있는 불성이 소원을 들어 준다고 믿
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으로서
의 부처님이나 여러 보살들이 소원을 들어
주신다고 믿으면 틀린 것입니다. 제불보살
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지 어디 다른
곳에 대상으로 존재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상에 눈을 뜨고 대상으로서의 부
처님께 자신을 맡기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
가 허다합니다.

호도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강을 건너는
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경전이라는 배는 강
을 건너면 버리는 것이지만 강을 건너서도
떠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수행이
다 강을 건너는 배입니다. 오직 강을 건너
는 일이 중요할뿐 배의 생김새나 크기 같
은 것에 집착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배를 타고 어떤 강
을 건너고 있습니까. 배는 잘 나갑니까. 더
러 노나 닻대가 부러지거나 썩지 않는지
배 밑창이 새어나 있는지 잘 살피고 조심
해야 합니다. 그 배를 젓는 사공은 자신입
니다. 부처님은 노를 잘 젓는 방법과 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을 일러 주시고 저 건너
에 피안의 언덕이 있음을 일러주시는 스승입
니다. 스승의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피안의 언덕을 보고 일

수행으로 부처님의 마음 곧 불성을 꿰뚫어
보고 교화참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마
하는 것은 하나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결국
에는 문자도 여의고 화두도 여의고 적정열
반의 대도를 증득하려면 이런 수행방편이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을
하는 사람이 교를 몰라도 안되고 교를
하는 사람이 선을 무시해서도 안되는 것입
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불교의 특징이자
자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계승으로 소개
할까요.
삼처전심사신지(三處傳心示禪旨)
일대소설개교학(一代所說開教學)
선사불설교사어(禪是佛說教是語)
이여취심대법도(離取心大法道)
나는 중생을 제도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고 중생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97
김성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34

경전은 살하기를
반야심경이라는 크
게 신비한 주문으로
서 일체의 고(苦)를
제거하며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고 한
후 바로 주문을 설
하여 ‘아제아제 바
라아제 바라아제
모제 사바하’라고

리고 일체의 것에
매달리지 않는 무
애를 얘기한다. 일
체의 계율마저 사
람의 마음을 묶어
두는 장애로 취급
하여 계율마저 뛰
어넘는 무애자재행
을 얘기한다. 공극
적으로는 그래야
가르친다. 주문의 뜻은 ‘가자 가자 더
높이가자 영원한 깨달음의 길로’이다.
경전은 색즉시공으로부터 시작하여 절
대적인 진리의 세계를 설한 후 그 진리
의 세계에 이르는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
한다. 영원한 깨달음의 길이 있음을 믿
고 그 길로 나가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심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로 떠
나는 첫 걸음이라는 뜻이다.
현대물리학에서 기술하는 물리적 상
태와 사람의 심리상태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다. 물리적 상태를 현대물리학에
서는 상태함수로 표현하는데 이 상태함
수는 갖가지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
능성을 기술한다. 깨달음을 살펴봤
아 이미 설명한대로 이
아제아제 바라아제
자 그것을 얻을 방

뒤음공덕 이웃에 회향할 때 온세상 극락정토

“누가 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도 성불의 아름다운 인연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자력회향(自力廻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팔정도나 육바라밀 등의
도를 잘 닦고 그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향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닦는다는 대
목에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등을 긁으면
내가 시원해 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불성
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닦
음의 공덕을 이웃에 회향함으로 아직 닦지
못한 중생에게 사표가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치면서 중생계가 더 빨리 극락정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빌더라도 대상의 부처를 바라는 안되는 것
입니다. 자기에게 갖춰진 여래의 성품, 바
로 자신의 불성에 의지해 소망을 받고 성
취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기가
낮은 까닭에 불상이나 보살상을 보고 예불
하고 기도하지만 실상 그 형상이 끝 나의
마음과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경전들을 보면 대개가 ‘이 경전의 이름
만 한번 들어도 무량의 복을 얻는다’는 주
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경
전의 내용을 잘 간파하여 자신의 불성을
밝히고 강조한 것이지 그 이름에 이끌리
거나 문자나 의미에 집착하려는 의미는 추

심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말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복을 준다는 다소 과격스러
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구제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
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
습니다.
사실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모두가 자신을 구제하는 방편이니
따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저 실천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으로서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바로
사는 것만도 자기를 구제하는 큰 방편입니
다. 하물며 경전을 공부하고 참선 수행하여
마음을 닦는 것은 얼마나 큰 방편이겠습니
까. 그 방편에 이끌리지 말고 부처님께 닦
아 나가면 스스로 성불의 길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8경도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
르침의 바른 실천 여덟가지가 팔정도 입니
다. 그걸 잘 지키는 삶이 이미 스스로를 유
량의 중생계에서 제도하는 일이라는 겁니
다.
잘들 아시는 말로 ‘선은 부처의 마음이
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라 했습니다. 참선

남 속이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 속이는 것은 부처님을 속이는 것
수행함에 가장 큰 적은 속이는 마음

다. 부처님은 중생에게 있어 우주법계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이 크신 스승이십니다.
그 스승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일체중생의
이교득락 해탈성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이끌려 스스로 혼미하지 않으
면 부처님께서 밝혀 보신 길을 통해 우
리는 모두 해탈성불의 대언을 이룰 수 있
습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굳은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팔만대장경이 일러주는 진
리의 소식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자기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못마는
사람이라면 경전을 봐도 경이 아닌 문자를
탐닉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참선을 한다하
도 공안이 없는 앉은뱅이 흉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천길 남파러지 끝에 선 마
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처님

“가자 더높이 영원한 깨달음의 길로”
진리의 세계 이르는 실천적 주문

가능성중에서 어느 한가지만을 나타내
게 하는 것은 사람이 그 상태를 끌려서
보았기 때문이다. 쉬되딩거의 고양이에
서 설명한대로 관찰하기 전까지 고양이
의 상태는 삶과 죽음이 섞여 있는 것으
로 기술된다. 살아있는 고양이를 본다는
것은 삶을 참조해서 보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도 물리적 상태와 닮았다.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는 모든 가능성이 뒤섞여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부
처를 생각하고 불도의 길을 갈 수도 있
고 마를 생각하고 마(魔)를 지을 수
도 있다. 불도 마도 다 마음을 쓰기에
달린 것이다. 마음은 물질과 달라 모양
도 없고 크기도 없어 잡을 수 없는 것
같지만 물질을 다듬어 모양을 만들듯이
마음을 다듬어 길들일 수가 있다. 마음
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 마음애다 말로
써 암시(暗示)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열불독경을 하며 반야심경
에서는 신비한 주문 ‘아제아제 ... 사바
하’를 즉 ... 저 영원한 깨달음의 길로’라는
말을 불자의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다. 열불이나 주문을 염하는 것은
다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부처도 버리고 조사도 버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백의 관세음보살님 목걸이
무명을 밝히는 관세음 보살님!
“관세음 보살님”을 수정관으로 감싸고 있으며 하단에
연꽃받침이 있고 연꽃받침 가운데에는 불무사파이어
보석3개가 있습니다. 또한 영구보존이 가능한 99% 순
은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관은 투명하여 모든 불자의 청정한 마음 “진
여심(眞如心)”을 상징하며, 보석3개는 삼보에 귀의함
을 뜻합니다.
목에 건 관세음 보살님은 나와 이웃의 佛心을 한층 돈
독히 할 것입니다.
제조원 예광기획(의장등록 출원)
관세음보살 목걸이
연락처 (02)752-3617 · 779-2979 (09-17시까지 통화가능)

二載佛敎에서만 西藏香을 만듭니다
히말라야 천연향 탄생!
저희 이재불교에서 순수 천연향인 설산수도향과 영취삼
매향을 만들었습니다.
화학방향제인 무스클을 사용한 일본제품보다 더욱 질 좋
은 제품입니다.
어찌하여 신도님들은 삼보에 공양할 향을 화학제품으로
선택하십니까?
일본에서 저희제품과 같은 순수 천연의 저장향 가격을
알아보셨습니까?
2천만 불신도 여러분!
삼보에 계신 스님들은 항상 화학향으로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무스클라는 화학 방향제를 사용한 일본
제품의 배척운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일본에 불교를 전파한 나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순수 천연향을 선택 하십시오!
※ 단기간에 열렬히 성원해주신 점포주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리며 새로이 취급을 원하시는
점포는 본사로 직접 문의 바랍니다.
저희는 중산상을 쓰지 않습니다.
二載實業 佛敎事業部 (02)467-6044-5
FAX (02)467-6045

출전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치유, 스트레스를 완
화시켜 뇌내모르핀의 분비를 활성화 함으로써 노화방지는 물론
현대인의 잦아한 병(30-50대 여성)의 화병, 불안, 신경질, 불면증,
피부병, 직장인·수험생건강 등을 예방 치유합니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들었습니다.
* 세계 유일의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복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1) 불면증 93.3%, 심장질환자 92.9%
2) 뇌졸중 91.3%, 어지러움증 91.3%, 부
비염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9.0%
3) 알라곤 자유효과를 기록했다. (02)217
108업주(小) ₩320,000 목걸이 ₩150,000
단주(大27말) ₩250,000 단주(고무줄) ₩70,000
명상용(氣) 방석 ₩120,000 반지 ₩45,000
계좌번호 : 중소기업은행
001-051259-02-015 예금주 조영옥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브렉방 벽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昊空 書寫

불교달력
아직 달력을 맞추지 않으셨다면
불교달력 전문 인쇄공장으로
직접 주문 하십시오.
마음에 와 닿는
달력을 만나실것입니다.
연락주시면 견품 및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오장동 69-2
강진 정판사
전화 : 02)269-9755
FAX : 02)268-2391